승무원 출신 객실본부장 '임원 탄생'

전북 출신 이주연씨, 정기인사서 상무로 승진
450여명의 객실본부 이끄는 최초의 여성 임원돼

국내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에서 근무하는 여성 임직원들의 활약상이 최근 화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 이스타항공에서 근무하는 여성 임직원들의 활약상이 최근 화제다.

최근 국내 LCC업계 최초로 여성 확인정비사를 배출한 이스타항공이 최근 정기인사를 통해 국내 민간항공사 최초로 승무원 출신의 여성객실본부장 임원이 탄생해 업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에 임원 승진이 된 주인공은 전북 출신의 이스타항공 이주연(53) 객실본부장으로 최근 단행된 정기인사에서 상무로 승진해 이스타항공에서 가장 큰 조직인 450여명의 객실본부를 이끄는 최초의 여성 임원이 됐다.

이스타항공 객실본부는 승무원 교육훈련과 기내안전을 담당하는 안전훈련팀, 비행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객실승무팀, 기내안전 품질을 관리하는 객실품질그룹, 기내서비스 제공의 케이터링운영팀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새로운 정부에서 일하는 여성들과 경력단절여성들의 근무환경과 사회 진출에 대한 지원 및 정책 확대 논의가 뜨거운 상황에서 재취업을 통해 여성임원까지 오른 이번 사례는 더욱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이 본부장은 지난 1987년부터 1998년까지 대한항공에서 객실승무원으로 근무하고, 2009년 이스타항공에 합류하면서 전주에 위치한 예약센터장을 맡았다. 이후 2012년부터는 객실부문장과 교육훈련팀장을 역임했고, 2014년 9월부터 객실본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시에도 여승무원 출신으로는 최초로 객실본부장의 직책을 맡은 이 본부장은 이후 고객들의 기내 안전과 서비스를 총괄하는 객실본부의 수장으로서 업무 성과를 이어 나가며, 이스타항공 객실본부 운영 시스템을 최고 수준으로 정착 시켰다.

초기 단순한 음료와 간식 등의 기내서비스 메뉴를 큰 폭으로 다양화하고 기내식을 개발해 사전주문 서비스로 확장시켰다.

이어서 면세품 판매 확대와 자체 개발한 로고상품과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이스타샵(EASTAR SHOP)' 서비스를 선보이며, 기내 부대수익 매출 상승에 기여했다.

또한 지방공항에서 운항하는 국제노선의 기내 서비스 확대를 위해 각 공항에 케이터링 사무실을 구축해, 내외국인 고객들의 니즈에 맞는 맞춤 제품을 개발해 판매했다.

이 본부장의 이번 승격은 저비용 항공사에 맞는 새로운 시도와 서비스 확대, 최상의 기내 안전 구축을 위한 관계 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이끌어 내어 국토부장관상, 전북도지사상을 받는 등 업무 성과를 인정받아, 올 4월 진행된 정기승진 인사에서 상무로 승격됐다.

이주연 객실본부장은 "이스타항공이 대형항공사들의 독과점을 깬 것처럼 항공업 특성을 감안한 여성 배려의 개방적인 인사정책과 열린 경영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직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 서비스 품질 향상과 회사의 가치향상을 이루어 직원들의 가치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전체 인원의 41%를 여성 인력이 근무하고 있으며, 일가정 양립을 위한 탄력근무제 도입, 능력중심의 인사제도를 운영하며 조직문화 확립에 나서고 있다.

/안재용 기자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결과… 복지체감 여전히 낮다

5년 전과 비교해 "농촌복지여건 좋아졌다" 응답 47.3%에 그쳐

농촌복지의 지표와 세부 만족도는 향상되고 있으나 전반적인 복지체감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전국 농촌 4,010가구를 대상으로 보건의료와 사회안전망, 복지서비스 부문을 조사한 '2016 농어업인 복지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는 국가승인통계(통계승인번호 제 114037호)로 농촌진흥청에서 총 10개 부문을 매년 달리해 5년마다 실시하며, 농촌 복지수준을 진단해 농촌 복지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통계자료이다.

'보건의료' 부문의 주요 결과 중, 농촌가구가 환자 발생 시 주로 이용하는 의료기관은 '병(의)원'(83.5%), '종합병원'(10.8%), '보건소(지소)'(3.0%)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의료시설 이용 경험가구는 45.5%이었으며, 주로 '예방접종'(29.2%), '기타 질환 치료'(27.4%)를 위해 이용한다고 응답했다.

농촌가구의 18.8%가 응급실 이용 경험이 있었으며, 응급실까지의 주요 교통수단은 구급차(25.1%) 보다는 개인차량(66.3%)이 많았다. 구급차 의료서비스는 84.3%가 만족한 반면, 의료인력과 의료시설 접근성은 각각 28.9%, 22.9%만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의료서비스 질병 치료 시 어려움은 '치료비 부담'(32.4%)이 2013년보다 12.5%p 줄었으나, '적합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렵다'(16.5%)는 응답이 2배가 늘었다.

'사회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부문의 주요 결과는, 농가의 농업인안전재해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은 16.6%, 15.2%로 낮지만 2013년보다 각각 5.9%p, 6.8%p 늘었으며, 농업인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 지원에 대한 이용 경험 가구의 만족도(100점 만점)는 각각 67.5, 67.9점이다.

복지시설의 이용층(21.0%)은 2013년(7.6%)보다 약 3배가 늘었고, 월 4-5회 이용비율도 1.3%에서 9.6%로 약 7배가 증가했다.

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바빠서'(42.4%)라는 대답이 가장 많았고, '이용 가능한 시설이 없거나'(24.7%) '시설을 잘 몰라서'(12.9%)라는 응답순이었다. 복지시설 이용 경험 가구의 복지시설 이용 만족도는 71.2점으로 나타났다.

5년 전과 비교해 농촌복지여건이 좋아졌다는 응답은 47.3%이었으나, 거주지역의 복지여건은 17.1%만이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농촌진흥청 윤순덕 농업연구관은 "농촌복지수준이 국가최저기준 도시든 농촌이든 어느 곳에 거주하든 상관없이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최소한의 삶의질 수준을 충족하는지 모니터링 하는 동시에, 도시와 농촌간의 복지격차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 진단과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재용 기자

전북농협,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 위촉식

완주군 소양면 인덕마을에 이색 명예이장이 탄생해 주목을 받고 있다.

서울에서 전문 유럽식 레스토랑을 운영하는 황하늘 셰프(제이더블유라운지 대표이사)가 14일 농협중앙회가 추진하는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에 동참, 이 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된 것이다.

그는 위촉식에 이어 마을 내 食체험관에서 지역 대표 농산물인 참나물을 재료로 한 요리법을 주민들에게 전수해줘 큰 호응을 얻었다.

황 셰프와 주민들이 참나물로 함께 만든 음식은 파티나 행사 등에 쉽게 손으로 집어먹을 수 있는 핑거푸드의 일종으로 빵이나 크래커 등에 참나물 페스토를 짜처럼 발라 먹을 수 있는 '참나물 페스토 까나페'를 비롯 '참나물 페스토를 곁들인 베이컨 토마토 스파게티'로, 지역 축제나 휴가철에 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선보여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황 셰프는 "명예이장이 된 것을 계기로 자주 마을을 찾고, 마을에서 직접 수확한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활용한 요리법을 개발.전수해 인덕마을의 대표 요리로 자리 잡아 마을의 소득을 올리는데 기여했으면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안재용 기자

LH, 익산식품클러스터 준주거용지 2필지 재입찰 공급

LH 전북본부는 익산시 왕궁면 일원에 조성중인 익산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내 준주거용지 2필지(3,000㎡)를 15일 공고를 통해 입찰방식으로 공급한다.

이번 공급하는 준주거용지 2필지는 지난 5월 총 23필지를 입찰공고해 그 중 21필지 매각계약 체결했으나 미매각된 토지로 필지 면적은 각 1,381㎡, 공급가격은 3.3㎡당 175만2,000원 ~ 180만5,000원이다.

건축시 건폐율 70%, 용적율 350%, 최고층수는 7층 이하가 적용되며, 신청은 입찰방식으로 진행되고 신청자격은 일반실수요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1인 2필지도 신청가능하다.

입찰신청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는 26(월) 10:00 ~ 16:00, 개찰은 같은날 17시에 진행되며, 18시에 낙찰자가 발표되며 계약은 29일 LH전북본부 판매부에서 체결한다.

공급신청은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며, 입찰보증금은 납부기간 내 입찰금액의 5%이상이 납부돼야 한다.

기타 공급대상 토지의 세부내역과 분양관련 사항 등은 LH 인터넷 홈페이지(www.lh.or.kr)를 조회하거나 LH 전북지역본부 판매부(☎063-230-6106, 6103)로 문의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안재용 기자

경진원, '기업속으로 프로젝트' 현장간담회 실시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어려움을 호소해 온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기업애로를 해소해 주는 세심한 지원을 실천해 나가고 있다.

경진원은 14일 다양한 지원사업의 혜택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의 목소리를 현장에 직접 찾아가 듣는 '기업속으로 프로젝트'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진안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20여명이 참석해 기업의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 농공단지 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안재용 기자

수업나눔과 평가혁신을 통한 즐거운 학교문화 조성 _ 두 번째 이야기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등교시각 늦추기로 아침이 행복한 학교 만들기 –

"달라진 모습이요? 부모님과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가기 때문에 힘들었던 아침수업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 조아현 (군산남고 1학년)

"가만히 아이들의 눈을 바라보고 몇 마디 건네는 대화 속에서 그동안 서먹해졌던 관계가 신기하게도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어요. 아침의 여유! 이게 긍정적 변화라고 생각해요." – 신혜원 (두 아이의 엄마)

"확실히 수업시간에 집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허둥지둥 뛰어 오는 아이들이 줄어서 생활지도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고, 수업준비도 충실하게 할 수 있어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 박은희 (옥구초 교사)

미안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가고싶은 학교 행복한 교육공동체+ '아침이 행복한 학교'는 학생의 과중한 학습부담을 줄이는 한편 가정의 '보금자리'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시작된 따뜻한 교육정책입니다.